

관계의 디자인을 말하다 딘앤딥 스튜디오

생활 소품부터 가구, 인테리어, 그래픽 등 다양한 작업을 펼치고 있는 딘앤딥 스튜디오. 전체적으로 모던한 제품을 선보이지만 가구에서만큼은 전통의 모티브를 적극 반영하는 점이 눈에 띈다. 긴밀한 관계 속 조화를 꿈꾸는 이들의 디자인 스토리를 담았다.
글 이나리 | 도움주신 곳 딘앤딥 스튜디오(www.dindip.co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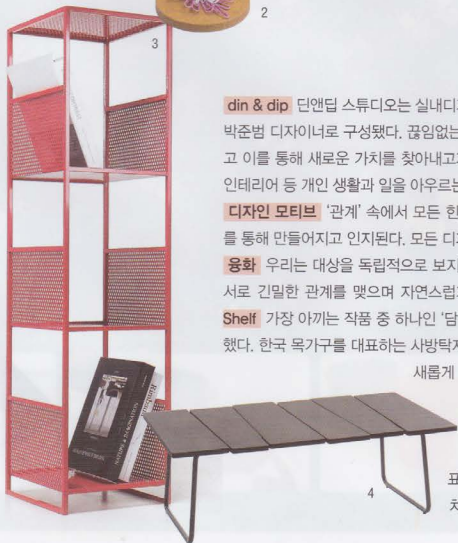


1 Clip Pad 다양한 색상의 예로 보드로 만들어진 마우스패드. 흘러 기능이 더해져 컴퓨터 작업 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.

2 Speech Bubble 말풍선 모양의 메모판과 지식 클립 홀더로 구성된 오피스 용품이다. 지루한 책상 위에 활력을 불어넣는 유쾌한 아이템.

3 Dam Shelf 전통의 구성과 현대적 쓰임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신반, 책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. 간결한 선과 면의 만남이 인상적이다.

4 Floor Table - Low 한국 전통가옥의 마루 모습을 담아낸 테이블이다. 특유의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제품으로, 소파나 라운지 체어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

din & dip 딘앤딥 스튜디오는 실내디자인을 전공한 박종호 디자이너, 금속공예를 전공한 박준범 디자이너로 구성됐다. 끊임없는 소통으로 각자 다른 관점,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자 한다. **생활을 디자인하다** 제품과 가구, 그래픽, 인테리어 등 개인 생활과 일을 이루르는 다양한 범위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. **디자인 모티브** '관계' 속에서 모든 힌트를 얻는다. 우리가 디자인하는 모든 대상은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고 인지된다. 모든 디자인의 시작이며 디자인 그 자체, 관계에 답이 있다. **융화** 우리는 대상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요소와의 유기적인 흐름을 고려한다.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자연스럽게 하나의 융합체로 보이는 것을 지향한다. **Dam Shelf** 가장 아끼는 작품 중 하나인 '담 셸프(Dam Shelf)', 전통과 현대의 요소를 버무려려 했다. 한국 목가구를 대표하는 사방탁자의 구성과 기능에 집중하되 현대적 쓰임에 맞도록 새롭게 디자인을 구성했다. 전통의 구현에 머물지 않고 현대 생활에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. **미래의 딘앤딥** 딘앤딥 스튜디오의 작업만으로 한 공간을 풍성하고 알차게 꾸미는 게 목표다. 여러 디자인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며 차근차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 **☐**